

우주

중단된 스타십 13차 발사 다시 시도된다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중단된 스타십 13차 발사 다시 시도된다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 X는 텍사스 스타베이스 2번 발사대에서 스타십의 13번째 시험비행을 시도했으나, 카운트다운 종료 직후 엔진 점화 단계에서 발사가 자동 중단됐다. 중계 화면 기준 슈퍼헤비 부스터의 랩터 엔진 33기 중 4기가 점화되지 않았고, 일부 엔진이 정상 시동되지 않자 자동으로 발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이스X는 문제가 된 랩터 엔진 2기를 교체한 뒤 7월 20일(한국시간 21일) 재발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13차 비행은 스타십 V3 기체의 두 번째 시험비행으로, 상단부(Ship 40)와 슈퍼헤비 부스터(Booster 20) 모두 신규 기체다. 이번 비행의 핵심은 사상 처음으로 실제 양산형 스타링크 V3 위성 20기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준궤도 궤적으로 비행해 위성이 궤도에 남지는 않지만, 우주 공간에서 약 20분간 태양전지판·안테나 전개, 레이저 링크를 통한 기존 스타링크 위성군과의 연결 등 실제 운용 환경을 시험한 뒤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이 중 6기에는 외부 카메라가 장착돼 재진입 과정에서 스타십 열차폐 타일의 고해상도 열 추적 데이터도 수집할 예정이다.

스타링크 V3는 위성 1기당 다운링크 용량이 1Tbps로 기존 V2 미니(96Gbps)의 10배가 넘고, 업링크 용량은 V2 미니 대비 24배 이상 수준이다. 스페이스 X에 따르면 운용형 스타십은 1회 발사로 약 60Tbps의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팰컨 9로 V2 미니를 쏘아 올릴 때 대비 20배 이상이다. V3 배치가 본격화되면 우주 기반 대역폭이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스타링크 매출 성장의 병목이던 용량 제약을 스타십-V3 조합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진행된 직전 12차 비행에서는 단 분리 직후 부스터가 급격히 전복되며 대부분의 엔진이 정지했고, 착륙 연소 때 단 1기만 점화돼 시속 약 1,450km로 멕시코만에 충돌하며 제어 착수에 실패했다. 상단부에서는 랩터 엔진 6기 중 1기가 약 36초 만에 꺼지는 문제도 있었으나, 상단 자체는 비상 프로파일로 대응해 인도양 재진입·착수에는 성공했다. 다만 부스터 이상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이 사고로 분류해 조사를 요구하면서 비행이 한동안 중단됐다. 13차 기체

한주 간 주요 뉴스

스페이스 X, 군사 데이터 네트워크용 위성 21기 발사 성공

트럼프 우주군참모총장 지명자, 우주군 예산 2배 이상 증액 계획 옹호

솔츠먼 미 우주군참모총장 고별 경고, "우주 평화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해야"

스위스토 12(Swissto12), 소형 정지궤도(GEO) 위성 생산 가속 위해 7,000만 달러 조달

미 우주군, AI 기반 훈련 기술에 슬링샷(Slingshot) 에어로스페이스와 6,900만 달러 계약

영국 정부, 새로운 국가 우주 전략 발표 준비

폴란드, 우주 투자 확대와 함께 유럽 우주국(ESA) 신규 센터 유치

에는 재점화 신뢰성을 높인 하드웨어 개선과 엔진 경보·중단 로직 업데이트, 열 차폐 타일 부착 방식 다변화 등이 적용됐다. 이번 발사 중단 역시 업데이트된 중단 로직이 엔진 이상을 감지해 이륙 전에 기체를 세운 것으로, 결함을 안은 채 발사를 강행하는 상황을 막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발사 윈도우는 7월 20일 현지 시간 오후 5시 45분(한국시간 21일 오전 7시 45분)에 열릴 예정이다. 33기의 엔진 중 문제가 된 2기를 교체하고 곧바로 재발사 일정을 확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월 1회 발사를 목표로 하는 스타십 프로그램 특성상, 개별 비행의 성패 못지않게 이러한 발사 주기 단축 능력이 스타링크 V3 배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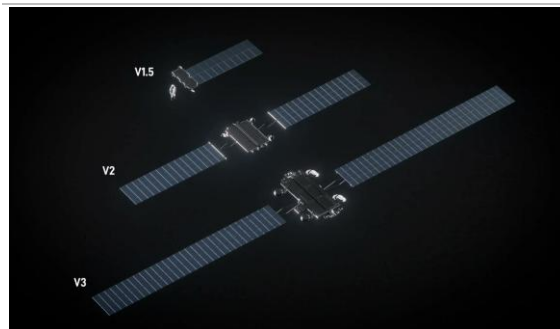
발사대에서의 로켓 발사 중단 자체는 우주 산업에서 드물지 않은 사건으로, 개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관건은 이후의 마일스톤이다. 스페이스 X는 14차 비행에서 스타십의 첫 궤도 진입을 검토 중이고, 2027년에는 아르테미스 3 임무를 위한 개조형 스타십 V3와 오리온 우주선의 도킹 시험도 예정돼 있다. 스타링크 V3의 본격 배치와 궤도 비행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스타링크 서비스의 고도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발사 중단 직후 스타베이스 발사대의 스타십



자료: SpaceX, 유진투자증권

스타링크 위성 세대별 크기 비교



자료: SpaceX, 유진투자증권

스타링크 V2 미니 vs V3 성능 비교

구분	V2 미니	V3
다운링크 용량	96Gbps	1Tbps (약 10 배)
업링크 용량	약 7Gbps	160Gbps (약 22 배)
배치 발사체	팔콘 9	스타십 (1 회 20 기 이상)
발사당 추가 용량	기준(1 배)	20 배 이상
태양전지판 출력	기준(1 배)	약 2 배

자료: SpaceX,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